

Session 4: Joseph's Dungeon: The Power of the Spirit and Humility

요셉의 감옥: 성령님과 겸손의 능력

I. WALKING IN HUMILITY IN MINISTRY

겸손으로 행하는 사역

- A. This session will focus on the **heart response of humility** that God requires from those He entrusts with a greater measure of His Spirit. Humility expresses itself in *not drawing attention to ourselves* in ministry and in bearing reproach for *standing boldly* with what God is doing.

이 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의 더 큰 분량을 위임하신 사람들에게서 요구하시는 **겸손으로 반응하는 마음**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겸손은 사역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 **담대하게 서며** 비난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

²⁹“...learn from Me, for I am...**lowly in heart** [humble, meek].” (Mt 11:29)

²⁹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떼고 내게 배우라 ... (마 11:29)

⁵**Blessed are the meek** [humble],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Mt. 5:5)

⁵ **온유한**[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 B. The Spirit releases power to exalt Jesus and not draw attention to the vessels that He uses. One aspect of a “new expression” of Christianity includes honoring the Spirit’s leadership by refusing to **resist or exaggerate** what the Spirit is doing.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권능을 부으시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관심을 끌기 위해 권능을 붓지는 않으신다. 기독교의 “새로운 표현”의 한 측면에는 성령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거절하거나 과장하지 않음**으로 성령님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한다.

¹⁴**He** [Holy Spirit]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of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Jn. 16:14)

¹⁴ 그[성령님]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 16:14)

- C. The Spirit wants to manifest His power through people who will not use it to draw attention to themselves. This “friend of the bridegroom-type” ministry draws attention to Jesus.

성령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데 사용하지 않을 이들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신랑의 친구들”의 형태의 사역은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이끈다.

²⁹ ...**the friend of the bridegroom...**³⁰**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Jn. 3:29-30)

²⁹ ...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 ³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 3:29-30)

⁵**We do not preach ourselves, but Christ Jesus the Lord...** (2 Cor. 4:5)

⁵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 (고후 4:5)

II. THE DAY OF PENTECOST (ACTS 2): A PATTERN FOR MINISTRY

오순절 날 (행 2 장): 사역의 예

- A. What the Spirit did in Jerusalem on the day of Pentecost is a pattern of what He will do in many places in the end times. Th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include wind, fire, and “wine.”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은 그분이 마지막 때에 많은 곳에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범례(pattern)가 된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에는 바람, 불과 “포도주”가 동반되었다.

²*Suddenly there came a sound from heaven, as of a rushing mighty wind, and it filled th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³Then there appeared to them divided tongues, as of fire, and one sat upon each of them. ⁴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¹³Others mocking said, “They are full of new wine.”...¹⁴Peter...said...¹⁵“For these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Acts 2:2–15)

²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³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¹³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 ¹⁵ [베드로가 말하되]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행 2:2-15)

- B. Wind speaks of the realm of dramatic miracles that involve angelic activity (Heb. 1:7, winds). Fire speaks of impartation of God’s love, purity, and zeal, and the Spirit’s conviction (Jn. 16:8).

Wine includes the heart being empowered to overcome bitterness and wounds, etc. This is a rare sign to validate something God is saying. *Wine is meant to be a rare sign, not a ministry culture.*

바람은 천사의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극적인 기적의 영역을 말한다 (히 1:7; 바람들).

불은 하나님의 사랑과 순결함, 열정이 부어지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부어짐을 말한다 (요 16:8).

포도주는 쓴 마음과 상처들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이 강건케 됨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드문 징조이다. 포도주는 보기 드문 징조이며, 이는 사역적인 유행이 될 일은 아니다.

III. A VISION OF JOSEPH’S DUNGEON: A PROPHETIC PARABLE

요셉의 감옥의 환상: 예언적인 비유

- A. In May 1983, the Lord spoke of a season of spiritual drought on America that would break at a God-determined time. I had been asking Him, “How long until the spiritual drought breaks and the youth movement of singers and musicians begins?” In April 1984, God gave a partial answer.

1983년 5월, 주께서는 미국 땅에 영적인 가뭄의 시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나는 주께 묻고 있었다, “이 영적인 가뭄이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싱어와 뮤지션의 젊은이들의 운동은 언제 시작됩니까?” 1984년 4월,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답을 주셨다.

- B. In April 1984, I heard God’s audible voice say, “*I have a revelation for you. Call Bob Jones.*” The fear of the Lord came upon me. Several hours later I spoke with Bob Jones.

1984년 4월, 나는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나에게 너를 향한 계시가 있다. 밥 존스에게 전화를 걸어봐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엄습했다. 몇 시간 이후에 나는 밥 존스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 C. Bob said, “I had a visitation from the Lord today that I am to share with you.” Bob saw an open vision—a parable of Pharaoh’s cupbearer and baker in the dungeon with Joseph (Gen. 40:2-19). In the vision, Bob understood that both men had been accused of having poison in their service to Pharaoh, though one was later restored. Bob understood that they represented two types of ministry in the Church today—one has poison in its ministry, the other does not.

밥은 말했다, “나는 오늘 당신과 나눌 내용에 대해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린 환상 가운데 요셉의 감옥에 있는 두 사람,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창 40:2-19)의 비유를 목격했다. 이 환상에서 밥은 두 사람이 모두 바로를 섬기는 일에 독을 넣었다고 고발된 것으로 이해했으며, 이 중 한 사람은 후에 복귀되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교회 안의 두 가지 형태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나는 사역 가운데 독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

²Pharaoh was angry with...the chief butler [cupbearer] and the chief baker. ³So he put them in...prison, the place where Joseph was...⁴They were in custody for a while. ⁵The butler and the baker...had a dream, both of them, each man’s dream in one night...¹²Joseph said to him [butler/cupbearer], “This is the interpretation...¹³within three days Pharaoh will...restore you ...and you will put Pharaoh’s cup in his hand...¹⁸Joseph answered [the baker]...¹⁹“Within three days Pharaoh will...hang you on a tree.” (Gen. 40:2-19)

²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 그들을 ...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⁴ ...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⁵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 ¹² 요셉이 그[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 ¹³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 ¹⁸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 ... ¹⁹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 (창 40:2-19)

- D. Genesis 40 tells us that the baker was hanged; but the cupbearer was restored, and went on to serve wine to Pharaoh’s family. In Bob’s parabolic vision, the Lord said that the ***poison in the baker’s bread spoke of a ministry that did not promote humility in God’s family***. The baker’s bread in Bob’s vision represented the ministry of the Word (speaking, singing, writing, etc.).

창세기 40 장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 목매달려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어 바로의 왕가의 술을 맡게 되는 것으로 나온다. 밥의 비유적인 환상에서, 주께서는 떡 굽는 관원장의 떡에 있던 독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결손을 드러내지 않는 사역 임을 말씀하셨다. 밥의 환상 가운데 있었던 떡 굽는 관원장의 떡은 말씀을 사용하는 사역(설교, 찬양, 저술 등)을 상징했다.

- E. The Lord told Bob that in His timing He would remove the ministries represented by the baker, because their bread was poisoned and ***did not promote humility*** in others. The Lord showed Bob that He would use the wine to humble many in the Body of Christ.

주께서는 밥에게 그분의 시간대에 떡 굽는 관원장으로 표현된 사역들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떡에 독이 있었기 때문,” 혹은 그들의 사역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겸손을 낳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이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실 것을 밥에게 보여주셨다.

- F. The Lord showed Bob that He was going to both **bless and test** the Church in the area of humility by releasing the “wine of the Spirit,” and that He would exalt His “cupbearers” to serve His “wine.” However, they must minister before the King’s presence—His eyes—and not serve the “wine” in a way that promoted themselves. The Lord said this “**will begin in ten years.**” The wine was to be both a **blessing and a test** to God’s people to empower and promote humility in the Church.

주께서는 “성령의 포도주”를 부으심으로 교회를 겸손에 대해 **축복하며 시험하실 것**과, 자신의 “술 맡은 자들”이 그분의 “포도주”를 섬기도록 높이실 것을 밥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임재-그분의 눈- 앞에서 사역해야 하며, 그들 자신을 높이기 위해 “포도주”를 섬겨나가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이것이 “**10 년 안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도 하며, 시험하기도 하는 것**이며, 이는 교회 안에 겸손을 더욱 부어주기 위한 것이다.

- G. Some people **reject** the ministry of the Spirit, and others **exaggerate** it. Both come from a root of pride. Some seek their **identity in wisdom** (orthodoxy) and reject the Spirit’s ministry out of their loyalty to the Word. Some seek their **identity in power** (manifestations) and want to be seen as more anointed and sensitive to the Spirit than others. Jesus wants us to find our identity in Him.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거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를 **과장한다**. 두 가지 모두는 교만함이라는 동일한 뿌리로부터 온다. 어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혜 안에서** 찾으며 성령님의 사역을 거절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능력** (나타남, 현상)에서 찾으며, 자신이 다른 이들과 더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님에 대해 더 민감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 H. The Lord showed us that in His global end-time purposes He would first release the “wine of the Spirit” to test His servants with humility **before** He released the wind and fire of the Spirit. The Lord told Bob that He would eventually remove the ministries that refuse to promote humility.

주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때의 전 지구적인 목적을 위해 성령의 불과 바람을 부으시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겸손에 대해 시험하기 위해 “성령의 포도주”를 먼저 부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주께서는 밥에게 말씀하시길, 그분은 결국 겸손을 나타내기를 거절하는 사역들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 I. The ten-year period has at least two applications to us. The international release of the “wine of the Spirit” began in Toronto in the spring of 1994, which was ten years after Bob received this vision in April 1984. The wine of the Spirit was released in our midst locally right after the ten-year anniversary of IHOPKC, which was in the fall of 2009.

이 10 년의 기간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국제적인 “성령의 포도주”의 부으심은 1994 년 봄, 토론토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밥이 1984 년 4 월에 이 환상을 받은 지 10 년 이후였다. 성령의 포도주는 2009 년 가을, IHOPKC 10 주년 기념일 바로 직후에 (전 지구적이 아닌) 지역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 J. In the spring of 1994, the Lord poured out the “wine of the Spirit” in Toronto, using John and Carol Arnott, Randy Clark, and others. It was a move of God that changed many lives. There are many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at season that are important for future waves of the Spirit.

1994 년 봄, 주께서는 토론토에서 존 아노트와 캐롤 아노트, 랜디 클락과 다른 이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포도주”를 부으셨다. 이는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미래에 있을 성령님의 파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즌으로부터 배울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 K. God’s purpose for releasing the “wine” includes empowering hearts to overcome bitterness and wounds, etc. The release of such manifestations *tests God’s people with humility* in three ways: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부으시는 목적에는 심령을 강건케 하심으로 쓴 마음과 상처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에 대해 3 가지 방법으로 시험한다.**

Group 1: those who accept manifestations must bear reproach from others with humility

Group 2: those who exaggerate manifestations to draw attention to self must humble themselves

Group 3: those who resist manifestations because of unfamiliarity with them must be teachable

그룹 #1: 이러한 현상들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다른 이들로부터의 비난을 겸손으로 참아내야 한다.

그룹 #2: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러한 현상을 과장하는 이들은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한다.

그룹 #3: 생소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현상들을 거절하는 이들은 잘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L. There is a God-orchestrated “stigma” on the Spirit’s ministry of power (2 Cor. 12:7). We must accept this stigma, which humbles those associated with the ministry of the Spirit. We must neither draw back in the fear of man from what the Spirit is doing nor exaggerate it to seek the praise of men.

성령님의 권능의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흔(스티그마, 주님이 받으신 상처)”가 존재한다 (고후 12:7).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들을 겸손케 하시는 이러한 주흔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물러나서도 안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이를 과장해서도 안 된다.

⁷*Lest I should be exalted above measure by the abundance of the revelations, a thorn in the flesh was given to me, a messenger of Satan to buffet me, lest I be exalted... (2 Cor. 12:7)*

⁷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12:7)

⁴³*For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Jn. 12:43)*

⁴³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 12:43)

- M. Elijah challenged the prophets of Baal to a test to see whose God would answer by fire (1 Kgs. 18). The prophets of Baal worked themselves into a frenzy to cause God to answer by fire. Elijah poured water on the altar to show that the Lord did not need any help to answer by fire.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어떤 이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지 보자고 도전했다 (왕상 18 장).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도록 점차 광란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엘리야는 주께서 불로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단에 물을 부었다.

²⁸*They cried aloud, and cut themselves...until the blood gushed out on them...*²⁹*They prophesied until the time of the evening sacrifice...*³³*[Elijah]...said, "Fill four waterpots with water, and pour it on the burnt sacrifice and on the wood."* (1 Kgs. 18:28-33)

²⁸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²⁹ ...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KJV 흠정역: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 ³³ [엘리아가 말하길] 또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왕상 18:28-33)

- N. We must only seek the genuine work of the Spirit. We must also understand the dangers of *describing*, *modeling*, and *rewarding* certain manifestations, which teach people to “manifest” in the flesh rather than as a result of the Spirit’s influence.

우리는 성령님의 진정한 일하심만을 구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어떤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모형화하고, 상을 주는 것의 위험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기보다 육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도록 가르쳐버린다.

- O. We are to be childlike in faith, which includes receiving from God and learning from others with a teachable spirit. We are *not* to be childish in perspective or in conducting ourselves without the restraints of love. Children are focused on themselves and draw attention to themselves.

우리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데, 이는 잘 배우는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아이들처럼 어리석은 관점을 가지거나 사랑의 구속이 없는 행실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신에게 관심을 끈다.

³“...unless you...become as little children...you will by no means enter the kingdom.” (Mt. 18:3)

³ ...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²⁰*Do not be children in understanding...in understanding be mature...* (1 Cor. 14:20)

²⁰ 형제들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전 14:20)

- P. The Spirit is quenched when we promote fleshly manifestations or reject genuine manifestations. We are to test and examine all that is presented as prophecy or as the work of the Spirit. In our zeal for the Spirit’s activity, we are to discern (by testing) that which is excellent or genuine.

성령은 육신적인 현상을 추구하거나 진정한 현상을 거절함으로 소멸될 수 있다. 우리는 예언이나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극히 선하고 진실된 것을 (시험함으로) 분별해야 한다.

¹⁹*Do not quench the Spirit.* ²⁰*Do not despise prophecies.* ²¹*Test all things...* (1 Thes. 5:19-21)

¹⁹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²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²¹ 범사에 헤아려 [한글 KJV: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좋은 것을 취하고 (살전 5:19-21)

⁹*I pray that your love may abound...in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¹⁰*that you may approve [test]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 [genuine work the Spirit]...* (Phil. 1:9-10)

⁹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한글 KJV: 모든 판단에 있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¹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시험하여] ... (빌 1:9-10)

IV. THINGS I LEARNED FROM JOHN WIMBER: BE SUPERNATURALLY NATURAL

내가 존 워버로부터 배운 것들: 초자연적으로 자연적이 되라

- A. In January 1984 Bob Jones told me that God was going to connect us with a movement based about 35 miles southeast of Los Angeles, which had a banner in the spirit over them called “*compassion and worship*.” He was referring to the Vineyard Ministries in Anaheim, California, under John Wimber (1934–1997). The Lord called the “*prophetic and intercession*” of Kansas City to cross-pollinate with the “compassion and worship” of the Vineyard Ministries.

1984 년 1 월, 밥 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LA 에서 남동쪽 35 마일(56km) 정도에 위치한 “**공홀과 예배**”라고 불리는 정신 아래 있는 운동과 연결시키실 것을 말했다. 주님이 언급하고 계신 운동은 존 워버(1934-1997)가 이끌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빈야드 사역이었다. 주께서는 캔사스 시티의 “**예언과 중보**”를 부르셔서 빈야드 사역의 “공홀과 예배”와 접목시키셨다.

- B. In October 1987, Bob prophesied that John Wimber would call me in January 1988. In January, John invited me to speak to his staff. On June 5, 1988, Bob prophesied that John would call to open three doors. It was to be a “*Holy Spirit seminary season*” that would last three years.

1987 년 10 월, 밥은 존 워버가 나를 1988 년 1 월에 부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1 월에, 존은 나를 그의 스텝 미팅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했다. 1988 년 6 월 5 일, 밥은 존이 3 개의 문을 열기 위해 나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3 년 동안 지속될 “**성령께서 이끄시는 신학교 시즌**”이었다.

- C. ***Dial down emotionally***: John emphasized John 5:19 in his healing model. We quiet our soul to listen and discern the impressions of the Spirit when we pray for people. ***Agreement*** with the Spirit is the key, rather than trying to “shout down the power” and stir up emotional fervor.

감정적으로 잠잠케 함: 존은 치유 사역 모델에서 요한복음 5:19 절을 강조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듣거나” 분별하기 위해 우리의 혼을 잠잠케 해야 한다. 이것의 열쇠는 “권능을 외치거나” 감정적인 열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과 **동의**이다.

¹⁹“*The Son can do nothing of Himself, but what He sees the Father do...*” (Jn. 5:19)

¹⁹...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 5:19)

- D. ***Linger***: The Spirit will show us more as we wait, with less talking and more listening to Him.

기다림(머무름): 우리가 말을 줄이고 그분의 음성을 더욱 들을 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 E. ***Speak out the impressions***: We must give expression to the impressions the Spirit gives us.

감동을 말하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표현해야 한다.

- F. ***Weakness***: We pray for people regardless of how we feel. It is worth our time and effort to lay hands on the sick. We value God’s power even when it is released in small measures.

연약함: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값진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적은 분량으로 부여지더라도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 G. **Humility:** We are not to draw undue attention to ourselves; we must avoid being melodramatic when we pray for people. Many quickly become intoxicated with pride when they see a little of God's power when they minister to others.

겸손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마땅치 않은 관심을 끌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줄 때 연극조의 투로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다른 이들을 향해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목격할 때 쉽게 자만심에 젖는다.

V. HUMILITY: ESTABLISHING A CULTURE OF HONOR

겸손: 존중의 문화를 세움

- A. It is important that we honor others in pursuing the ministry of the Spirit and do not yield to an elite spirit. We love God by honoring all the people that He calls and who are dear to Him. The Spirit requires that we dwell together in a ***culture of honor***. God's blessing flows when we honor others. The Spirit desires to establish a culture of honor and humility in His kingdom. We must honor the whole Body of Christ and the work of the Spirit in all the different streams of the Body (Baptist, Nazarene, Presbyterian, Anglican, Episcopal, non-denominational, Charismatic, Catholic, etc.)

성령님의 사역을 추구함에 있어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과 그분께 소중한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존중의 문화**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다른 이를 존중할 때 흘러간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나라에서 겸손과 함께 존중의 문화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흐름들(침례교, 장로교, 성공회, 영국 성공회, 무소속 교단, 은사주의 교단, 카톨릭 등)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존중해야 한다.

- B. We must have a deep sense of our need for others, along with a sense of the inadequacies and shortcomings in our own life and ministry. It is not okay to be removed or isolated from others.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삶과 사역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단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떨어지고 고립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

- C. Born-again believers who agree on the ***main and plain issues of faith*** must walk in a spirit of honor, even while disagreeing about various ministry values and focuses. The main and plain issues of faith include salvation by faith, the authority of Scripture, walking out the two great commandments, evangelizing the lost, and working to transform our cities and disciple nations.

믿음에 대한 중심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거듭난 성도들은, 다양한 사역적 가치와 초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에 대한 중심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이라 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성경의 권위와, 2가지 가장 큰 계명을 행해나가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의 도시와 열방을 제자화하기 위해 일해나가는 것을 포함한다.